

미국 CMS와 심평원의 협력방안



Sir. Jay Merchant 국장
CMS 국제협력국

1. 들어가며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같이 국가 건강보험 관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국가의 우선 순위에 따른 보건의료자원 할당과 재정 계획에 따른 비용 지불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CMS는 오랫동안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심평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한국의 여러 기관과 긴밀한 실무적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CMS가 한국의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발표는 CMS와 심평원과의 관계를 알리고, 앞으로 두 기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워싱턴 CMS 본부 전경

* 원고 정리: 김묘정 주임연구원(심사평가연구소 연구조정실)

2. CMS와 다른 국가와의 협력 관계

CMS는 지금까지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이러한 관계 구축과 관련하여 워싱턴은 다른 국가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CMS는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다.

이와 같은 주변 국가의 요청 사항이 추가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CMS 입장에서는 결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없다면 미국은 국제적으로 고립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동맹국과의 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시간과 자원이 충분할 경우, CMS는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국가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요청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식으로 국가의 요청을 충족시키려고 할 경우,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요청에 앞서 관련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중요성 파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해당 국가에서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용 자원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CMS가 다른 국가의 요청을 평가하고,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식을 검토하는 만큼 많은 국가들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한편, CMS와 심평원이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역할이 크다. CMS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참사관과 매일 협력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요청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참사관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참사관이 심평원의 요청 사항을 CMS의 적절한 부서로 보내면, CMS는 그에 응하여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스케줄링함으로써 최선의 방식으로 지원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평원도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CMS와 관계를 맺으면 더 많은 미팅과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기존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CMS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CMS는 미국의 주요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CMS는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매년 연간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미국 보건부 예산 중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책임감 있는 예산 지출이 필수적이다.

현재 CMS는 2010년 시행된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에 근거하여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로도 불리는 부담적정보험법은 새로운 보험 시장을 만들고 세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유례없는 폭넓은 의료비용 절감 패키지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법령이므로, 가까운 미래에도 그 순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획기적인 의료보장의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적정보험법의 통과는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미국이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국가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오바마케어는 다른 국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오바마케어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많은 미국인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현재까지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보건부 장관은 개혁에 따른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건강보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에 있어서 CMS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나가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매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정부, 의료 공급자,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중심의 심평원

이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심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그 효과가 더욱 배가된다고 판단된다.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서로의 업무와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를 배워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